'나' 찾아 떠났다가 '나' 방생했네

송기원 장편소설 '안으로의 여행'

히말라야 순례 번뇌로부터의 자유 체험
계룡산 토굴서 1년 넘게 글쓰며 참선

"히말라야나 남대문시장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저자거리 주변에 번다한 유혹이 많아 이겨내지 못해 떠났을 뿐, '나'를 찾는 여정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건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인천 용화사 조실 송담스님의 속가제자로서 97년 갑자기 8개월여간 인도로 떠났던 소설가 송기원(宋基元·법명 睡蓮·53)씨. 귀국후에도 1년 넘게 계룡산 대자암 근처의 한 토굴(土窟)에서 정진중인 그가 그간의 '내면으로의 여정'을 기록한 구도소설 〈안으로의 여행〉(문이당)을 펴냈다.

6년전 내원암 주지 석호스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참선수행과 글쓰기 작업을 병행해 온 송기원씨가 펴낸 이 책은 자신의 수행담을 소설의 형식으로 객관화시킨 결정체다. 중년 남자가 '빈껍질(번뇌 덩어리)'만 남은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 해발 3천m의 히말라야 설산(雪山)을 떠돌며 참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소설은 허무의식에 사로잡힌 한 잡지사 기자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아내에게는 이혼서류를 맡긴 채 인도로 떠나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여행 어느날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 울음소리는 바로 자신의 한 살 무렵이며,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떼놓고 어디론가 가버리자 그렇게 몸서리치도록 울었던 것이다. 처음에 제목을 갈애(渴愛)라고 붙였던 이유도 여기 있었으며, '갈애'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망과 고뇌를 상징하는 그의 절절한 화두였다.

아이 울음소리 이후 그는 이상하리만치 심신이 평온하고 아늑해지며 떠나오기전 자신을 옥죄었던 탐욕과, 속박과 허위, 고정관념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자신을 벼랑으로 몰아세워 가둘 수 있는 공간(히말라야)에서 모든 번뇌로부터의 자유, 즉 진정한 의미의 방생(放生)을 실현한 것이다.

작가는 "울음소리는 자기 무의식의 밑바닥(번뇌의 뿌리)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의식(我相, 내가 있다는 생각)의 세계에서 분별심이 끊어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스승이고 길이다'는 신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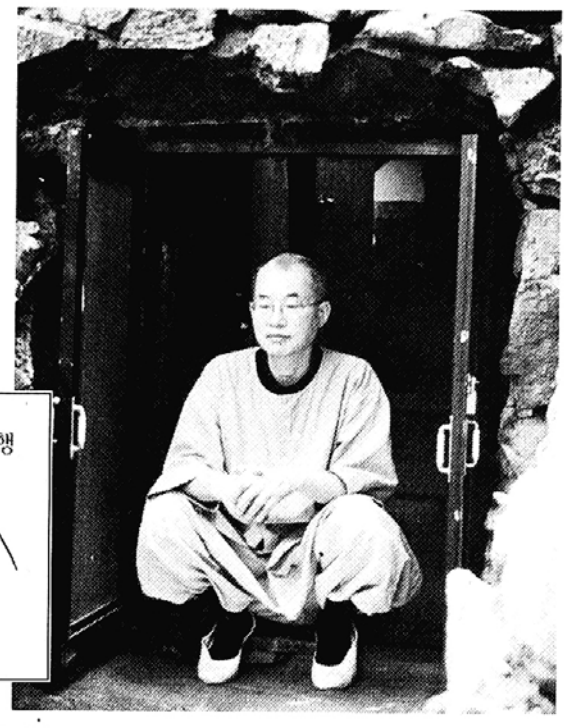
송씨는 "80년대에 치열하게 투쟁하며 골몰했던 리얼리즘이나 아이 울음소리 이후 비로소 알게 된 '내면의 리얼리즘'이나 그 뿌리는 동일하다"며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는 현실과의 정면대결에서 얻어진다"고 밝힌다.

따라서 그가 안주하고 있는 토굴은 도피처가 아니라 그의 작업장소이자 쉴 곳일 뿐이다. 노트북과 〈능엄경〉〈금강경〉〈아함경〉 등 경전들, 〈감산대사의 기신론 풀이〉 등 몇권의 책이 전부인 토굴생활, 참선과 산책, 글쓰기가 전부인 그의 여유로운 삶에서 진한 수행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마음공부는 참으로 즐거운 또 하나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견성이나 깨달음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별심 없이 사는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펴낸 소설 〈안으로의 여행〉은 인도에서의 처음 석달간의 이야기이다. 그는 토굴에서 1년간 더 머물며 '울음소리' 이후의 여정을 정리, 2부작으로 완성할 예정이며 '청년 붓다'도 구상중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계룡산 대자암의 토굴앞에 앉은 송기원씨. 송담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뭣고' 화두로 출가자가 못지않은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서산대사 詩碑 첫 공개

조선중기 이전 스님제작 추정
문화재소장가 보관…백범 애송시

조선 중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서산대사(1520~1604)의 시비가 최근 공개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백범 김구선생이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마다 되새겼던 시로도 유명한 이 선시는 폭 25cm 길이 90cm의 빛바랜 화강암에 새겨진 것으로, 8년전 문화재소장가 이원기(70) 씨가 서울의 한 골동품점에서 구입해 보관해 왔다.

이씨는 "처음엔 서산대사의 선시인 줄 모르고 그냥 내용이 좋아 구입·보관해 왔다"며 "최근 백범 서거 50주년을 다룬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서산대사의 작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원래 시비가 있던 자리에 대해 "남한산성 어딘가에 방치돼 있던 것이란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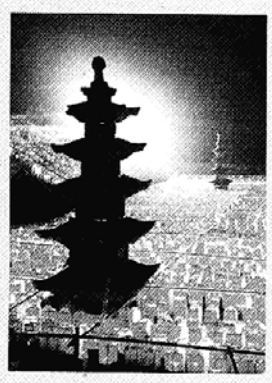
시비 탁본 과정을 지켜본 한국문학비건립동호회 이상보회장(국민대 명예교수·국문학)은 "이 땅에 변변한 시비 하나 없어 문학비 건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귀중한 서산대사 시비가 발견돼 매우 기쁘고 놀랍다"고 밝혔다.

또 금석문을 전공한 서예가 정상옥 교수(홍익대)는 "서체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때 유행했던 해서체로 새겨져 있어 적어도 조선 중기 이전의 것으로 보이며 남한산성 부근의 폐사지에서 나왔다면 서산대사를 존경하던 스님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소장가 이원기씨가 공개한 시비. 시비에는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부수호란행(不須胡亂行)/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눈덮인 광야를 지나갈 때엔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 후세들의 길이 되리니)라는 서산대사의 시가 새겨져 있다.

관광사진전 대상 **이순애씨의 '불심'**



'불심', '제비원 붓다'등 해외 홍보사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15~19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열리는 한국관광공사의 '제27회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그것.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구례 화엄사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 '불심'(이순애·대상·사진), 힘있는 공간 배치와 구도가 돋보이는 '제비원 붓다'(안드레 호프만·금상)등 공모전 입상 작품 90여점이 선보인다.

부산무용제 대상 **이명미무용단의 '카르마'**

지난달 30일 폐막된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에서 불교무용단인 이명미 우바이 무용단의 작품 '카르마(業)'가 대상을 차지했다.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이번 무용제에는 부산지역 7개 무용단이 참가해 각각 창작무용을 선보였다. 〈관련인터뷰 4면〉

무용단 '짓'의 '분절'과 4차 심사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대상을 차지한 작품 '카르마'는 업(業)의 뜻을 가진 범어.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인간이 입과 귀를 비롯해 눈과 마음으로 짓는 무수한 죄를 사하는 과정을 그렸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카르마'는 "작품에 대한 문제 의식이 뛰어났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변갑수씨의 '소나무'.

변갑수씨 소나무전
19일까지 백상기념관

동양화가 혜암 변갑수씨가 40년 화업을 정리하는 초대전이 10~19일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20세에 충북 괴산 보운사, 경남 합천 청양사등 사찰 탱화를 그리면서 본격적인 화업의 길로 들어섰던 변씨는 의재 허백련 등을 사사하며 산수화, 사군자 등을 화폭에 즐겨 담아왔다. 이번 전시회에서 변씨는 94년부터 작가 특유의 화풍으로 담아온 소나무 그림 43점을 선보인다. (02)724-2236

2백여 만다라 '감상'
롯데월드 23일부터 '티벳만다라전'

오색의 돌가루로 불교 세계관을 정교하고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만다라를 대하노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손끝의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 롯데월드는 티벳불교의 각종 만다라를 감상할 수 있고 또 직접 그릴수 있는 '티벳 만다라 전'을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민속관에서 마련한다.

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노은천)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티벳스님들이 기도와 수행으로 조성한 만다라 200여점이 선보이고, '만다라 그리기' '만다라 대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만다라는 여러 부처님과 존자를 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해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주의 진리를 체계적이고 상징적으로 함축한 예술작품.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는 자비와 동정으로 중생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관세음보살 만다라', 인생을 사랑과 자비로 복되게 한다는 '바즈라만다라', 모든 병과 액을 물리친다는 '메디슨단다라' 등 10여종에 이른다.

◇금강석 가루로 만다라를 제작하고 있는 티벳 스님들.

이외에도 불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다라 그리기'와 '만다라 대법회'도 마련된다. '만다라 그리기'는 전시장에서 상게스님 등 6명의 티벳스님들이 '칼라차크라만다라' 그리기를 시연하고, 또 불자에게 만다라 그리는 방법을 지도하는 코너. '만다라 대법회'는 전시회 기간중 매주 한 차례씩 봉행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용화사 미륵불등 성보 5건
전북도 지방문화재 지정

전북도는 6월29일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주우철)를 개최하고, 완주 송광사 나한전과 부안 용화사 미륵불입상등 성보문화재 5건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나한전'은 조선중기에서 후기까지의 불전양식의 흐름을, '미륵불입상'은 고려시대 거불형식을 고스란히 간직해 불교건축·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17세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금강문(완주 송광사), 고려시대 지방불상의 양식을 보여주는 석불여래좌상(전주 천고사),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꽃송이를 들고 있는 독특함이 돋보이는 마애여래좌상(남원 노적봉) 등도 각각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완주 송광사 명부전 소조지장보살삼존상·오백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목조삼전패·석조 등에 대한 국가지정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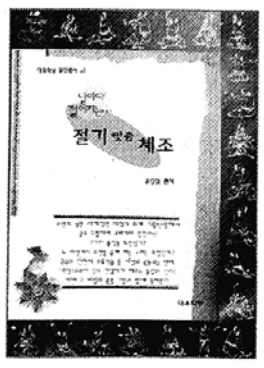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건강을 선물합시다.

… 절기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에 따라 양생법(養生法)이 다르다 …

· 소서체조 · 대서체조 · 고치집신

그림과 함께 익히는!!
날마다 젊어지는 절기맞춤체조
크라운판 260쪽, 정가 7,500원



신선들의 무병장수체조는 근육이 아닌 정신과 경락을 단련하니 그림과 함께 동작을 익히고, 틈틈이 설명을 본다
송나라의 신선 진희이선생이 창안함에 퇴계 이황선생도 친히 그려가며 즐겨 수련한
8가지 동작과 육기가결!

집중력 강화에는 '고치집신'을
입냄새 제거에는 '적룡교해'를
피로에 지쳤을 때는 '예수안정'을
정력강화에는 '8가지 기법'을…!!

24절기운동을 익히면서 8단금좌공법으로 보충하고
병이 있을 때는 신선들의 42처방을 참고하며
때때로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경문을 읊는다.
15일에 한 동작씩 24동작을 익히면 한달이면
건강해지고 1년이 안돼 신비로움을 느끼리라.

너무나 쉬운 동작 속에 진리가, 특히 수험생과 노인 투자자 등 주변의 친지분께도 선물하여 다같이 건강장수를 누립시다.
대유학당은 건강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7월 한달 동안은,
5부이상 구입시 권당 5,000원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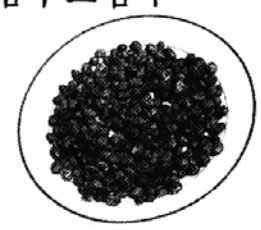
평생의 반려자

하루의 투자로 평생의 삶을
미리 알 수 있는 『하락리수』!
우주의 생성소멸원리를 부호화하고 도식화하여
나의 능력과 운명을 알 수 있게 한 비결!!
태어남(생년월일에 음양과 오행이 부여됨)→
384운 중의 하나→ 나의 평생운과 우주의 운행이 일치하는가?
거스르는가?→ 또 올해의 운, 이달의 운, 오늘의 운과의 일치여부→ 일치한다면 길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일치하지 않으면 신중하고 조심하여 어려움을 넘긴다.
※대유학당에서는 하락리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대유학당은 좋은 책만을 고집합니다: 02)2232-8383, 02)2234-1786

주역입문, 대산주역강해(上,下), 주역전의대전역해(上,下), 대산주역점해, 주역인해, 미래를 여는 주역, 편해 매화역수, 하락리수(上,下), 음부경과 소서, 오행대의(원문, 번역), 천문류초, 태을천문도, 예언의 허와실, 절기맞춤체조.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